문화기획 서정범 교수의 언어연구에 대해

언어현실과 이상언어의 차이점 규명

별곡시리즈, 언어사회학적 고찰 시도
어원탐구 과정에서 수필류 집필

Ⅰ. 머리말

필자가 의뢰받은 원고의 내용은, 국어국문학과 서정범(徐廷範) 교수의 대표적 저서에 대하여 그 내용과 성격, 가치 등을 일반 독자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선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 서 교수의 대표적 저서를 선정하는 것도 무리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서 교수의 학문의 본 모습을 왜곡할 수도 있어서 이 글에서는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Ⅱ. 서정범 교수의 저서

서 교수의 저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 걸쳐 있다. 국어학과 문학 분야이다. 국어학 분야는 다시 특수어 분야, 중세어 분야, 어원론 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특수어 분야는 서 교수의 학문적 성과가 최초로 결실을 보인 분야로서, '한국 특수어연구'(1959)가 대표적 저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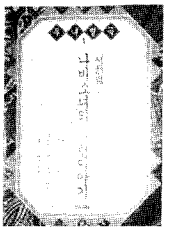
여기에서 다루어진 특수집단의 은어·속어들은 한국 언어사회상 연구(언어사회학연구)의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중세어 분야를 대표하는 저서로는, '유운의 국어사적연구'(1982)가 있다. 이 책은 그때까지의 학자들이 간과했던, 표기문자(문헌어)와 발음현실(현실음), 언어현실과 이상언어(理想言語)와의 차이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문헌어 자체를 현실음으로 인식한 대다수 학자들의 연구 태도를 일대 각성시킨 역작이라 하겠다.

어원론 분야는 서 교수가 시종일관하게 추구해 온, 학문의 본령이다.

그 대표적 저서는 '우리말의 뿌리'(1989)이다. 이 책은 비교언어학적 방법에 의해서 동계통의 언어들과 음운·형태·문법을 비교하고, 그에 의해 과학적 어원연구 방법론을 적용, 어원론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책이다. 이 책에서도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바 조어와 소실어 재구 방법론은 우리 국어학 연구의 새로운 개척이며, 국어의 형성과 그 기원을 밝힘은 물론, 그를 통해 우리의 고대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고 깊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큰 업적이다.

이러한 국어학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1985년부터 매년 꾸준히 간행되어 온 이른바 '별곡' 시리즈이다. 화원별곡(1985), 어원별곡(1986), 수수께끼별곡(1987), 이바구별곡(1988), 가라사대별곡(1989), 허허별곡(1990), 너스레별곡(1991) 우스개 별곡(1992)등이 그것인데, 대학생 사회에서 발달한 속어를 조사, 보고한 것들이다. 이 책에서는 단지 자료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 식 문답 형식을 띤 속어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의식 구조를 밝히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각 시리즈의 말미에서 그 시리즈들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한 일반 유모어 서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 책들을 통해서 독자들은 사회 병리 현상을 꼬집는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 교수의 문학 분야에서의 저서들은 주로 수필류들이다.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것이다. 수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모티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원 탐색이고 다른 하나는 무속이다. 그동안 간행된 수필집으로는, '눈천 열차는 아름답다'(1974), '겨울무지개'(1977), '무녀의 사랑이야기'(1979), '그 생명의 고향'(1981), '사랑과 죽음의 마술사'(1982), '영혼의 사랑과 그 빛'(1985), '풍화 꿈화'(1992), '무녀별곡'(상, 중, 하, 1992) 등이 있다. 최근 간행된 '무녀별곡'은 서 교수의 무속연구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속연구는 결국 어원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 데서 출발하여 전문가 이상의 성과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서정범 교수의 저서들을 분야별로 개관하여 보았다. 한마디로 서 교수의 저서들을 꿰뚫고 있는 커다란 흐름은 어원, 크게 보아서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라고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김 지 형
〈문리대 강사·국문학〉

문외인 '세일럼의 마녀들' 연극평 경희극회 '신입생이 타고갈…'

프록터의 가슴에 새겨진 진실
역사앞에 당당한 새생명 획득

사회는 법이 있다. 세일럼의 마녀재판의 기준은 마술이다. 원고는 마녀이고, 피의자는 마을 어린이들이다. 그러나, 마녀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마녀라 한들 "나 잡아가시오"라고 나서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면, 피의자인 마을어린이들이 지목하는 자(者)가 마녀가 되는 불가피한 현실이 된다.

우리는 눈금없는 잣대를 기억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을, 모 국회의원이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는 발언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우리를 떠들썩하게 했고, 한국의 드레퓌스 재판인 '유서 대필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국이 어지러울 때면 항상 불었던 바람인 '택카시 선풍'을 치밀리게 떠올리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로 떨게 되고, 거짓 고백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과 마녀 장난을 했던 에비게일을 비롯한 마을 어린이들, 부도덕한 목사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원한을 가진 사람이나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을 고발해 간다. 댄휘스 부지사가 열망하는 "순결한 영혼만이 사는 기독교 국가"라는 미명하에 사회는 환상적인 공포를 만들어 가고, 모두들 악몽에 생명을 떠맡기게 된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허위의식과 양심의 대립속에서 주인공 프록터는 에비게일과의 부도덕한 간음을 반성하고, 부인 엘리자베스와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면서 거짓고백을 거부한다. 형장으로 떠나는 프록터의 가슴에서 새기는 진실은 무엇인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삶에 깨끗하고자 하는 역사와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태어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극적 변화가 주는 긴장은 수려한 연출의 동선과 결합되어 두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지지만, 배우들의 친숙하지 못한 연기와, 발성의 미숙함이 극맥락을 이해 하는데 많은 장애로 다가왔다.

제16회 정기공연으로 준비되었던 문학 사람들의 짧지 않은 역사가 말해주듯, 작품선택과 연기는 세련되어 있지만, 관객을 생각하는 연극 —시간고려, 주제 전달 등— 의 고려가 더 신중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민시대라는 이름하에 고위관리로 임명된 자들이, 이 작품을 본다면 "방귀 뀐 놈이 부채질한다"고 부채를 하나씩 준비해 왔어야 되지 않을까?

권 기 현
〈신방·4〉

연극평 경희극회 '신입생이 타고갈…'

생소한 노동문제 효과적으로 제시
유머와 위트 적절 사용 돋보여

2막에 설정된 남해 한 조선소 근처의 선술집은 악순환이라 이름지을 수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준다. 젊음과 꿈이 전부인 선세생산부 신참 고동팔과 비 오는 날의 안전보다는 과곤을 달랠 술 한잔이 좋은 김일동, 남편과 자식을 안전사고로 모두 잃고 빗소리와 전화벨 소리에 조바심치며 불안해 하는 욕쟁이 과부에게서 힘없는 일개 노동자 일생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손안에 들어올 금전이고 그것을 미끼로 이른바 '사용자'는 구사대와 결사대의 외무를 그들에게 지우고 마는 것이다.

결코 악하지 않지만 평생 만질수 없었던 '물질'에의 환상에 동료를 칠 수밖에 없는 구사대, 일할만한 직장을 갖고픈 소박한 꿈에 처자식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결사대의 모습에서, 또 도둑과 사장의 아이러니한 '거래'에서 관객은 헤쳐 나가야 할 사회의 모순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를 위한 이중주'라 이름지을 수 있는 노조원들의 토론과 노력, 진실을 찾기위해 고민하는 모습에서 모순의 해결점은 어렴풋하게나마 나타난다.

이번 공연은 신입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노동문제를 실수인듯 보이는 '노동문제'란 무엇인가?

지난 8일부터 5일간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열람실에서는 이 물음을 다룬 경희극예술연구회의 옵니버스극 '신입생이 타고갈 아홉대의 버스'공연이 있었다.

1막은 40년대 노동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전노평, 70년대 평화시장 다락방의 노동자로서 노동환경개선과 근로기준법준수를 외치며 분신해간 전태일, 골리앗 크레인으로 상징되는 90년대 노동운동의 선봉장인 전노협, 세시랑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전태일과 전노평은 그간 수많은 노동운동가가 피 흘리며 쓰러져 갔음에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노동현장을 통탄해한다. 그러나 전노협은 골리앗 클레인으로 언제라도 다시 설수 있는 노동자들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그 변화의 몫을 대신하려 한다.

유머와 간결한 어휘에서 풍기는 위트를 사용,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입생이 타고가야 하는 버스는 과연 무엇인가?

고교시절 신봉했던 규칙들에 담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세상에서 극 마지막 '노동운동을 좇으며 사진을 찍고 싶다'는 사진사의 소망은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의 정도(正道)를 가르치는 듯하다.

〈문화부〉

연재소설

水菊필 하루 〈2〉

글:김도형〈국문·4〉 그림:김진우〈미교·3〉

꽃밭 담당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왕(王)사루비아의 안전이었다. 그것의 안전은 꽃밭 담당의 부사함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분꽃 옆자리에서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왕사루비아의 꽃잎 하나라도 다치는 날, 꽃밭 담당은 꽃밭에 아무렇게나 내팽겨진 꽃잎의 꼴을 각오해야 했다.

왕사루비아라는 이름은 왕사루비아라는 품종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워낙에 때묻은 왕사발 부시듯 호들갑 떨기 좋아하는 인사계가 사루비아 꽃잎이 피기만 하면, 물만 빨린 채 꽃밭에 휴지조각처럼 버려지고 마니까 "앞으로 사루비아 꽃잎이 떨어지는 날, 그 주 외박은 취소!"라는 즉탄선언을 했다. 인사계가 어이 없는 선언을 하고 내무반을 나서자 오지랖 넓은 강병장이 가만 있을 리 만무였다. "니미럴, 짬밥 오래 먹다보니 별 희한한 게 다 속을 썩이네. 이건 사루비아한테 받들어 총을 하라는 거야 뭐야. 사루비아가 그냥 사루비아가 아니라 왕사루비아네. 왕사루비아." 침을 튀기며 비아냥거린 데서 그럴 듯한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내무반 정리를 끝내고 막사를 나서는데 유일병이 꽃밭 담당이 된 기념이라도 하듯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고생길 훤한 담당이 그렇게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파란색 플라스틱 물조리개에서 흩뿌려지는 물이 햇살 쏟아지듯 했다. 마침 이름 모를 그 꽃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얼른 이름을 묻어 보았다.

"니는 여태 이것도 몰랐나."

웃음기를 싹 거둔 유일병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수국아이가, 수국."

수국. 자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한 번 들어본 이름 같기도 했다.

"무슨 수 자지요."

"물 수 자."

"국 자는 국화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 근데 니는 대학 다니다 왔다는 놈이 아직까지 이런 꽃 이름 하나 모르노."

"대학에서 뭐 그런 거 가르쳐 줍니까."

"이제 보이 가방 끈 긴 거 별 소용 없네." 웬히사람 결연찍게 되었다. 그래도 유일병 만큼 만만한 상대는 또 없었다. 고향이 같은 까닭이었다. 엄밀히 따지면 한 행정구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버스로 30분 밖에 걸리지 않는 한 생활권에 묶여 있어서, 고향 사람들은 예부터 구별을 하지 않았다. 굳이 차이를 두자면 유일병은 시골에, 나는 도시에 집이 있다는 것이었다.

입대일은 유일병이 겨우 사흘 오일이 빨랐지만 운좋게 바로 윗 동기로 걸렸다. 나이도 내가 한 살 아래여서 선배라 생각하면 속 편한 터수였다. 한 동기가 되었더라면 오히려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밤에 피는 꽃을 왜 물 수 자(字)를 써서 수국이라 부르는지 고개가 갸우뚱했다. 유일병에게 다시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 두었다. 꽃 이름이야 시골에 살았으니 많이 알겠지만 이름의 유래 같이 어려운 문제야 이 어리숙한 촌사람이 어떻게 알랴 싶었다.

"쉿 휴가는 언제 갑니까?"

유일병의 동기인 박일병이 정기 휴가를 출발하는 날이었다.

"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 나도 이제 아홉달 핸데…. 근데 나는 며칠 면제 받았다 캤도?"

"석달요."

"머리가 나빠 놓이 들어 놓고도 까먹었네……. 돌대가리는 할 수 없다."

입귀가 귀밑까지 찢어지는 웃음을 머금었다. 나도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우쨌든 좋겠다. 나도 석달 면제 받았으면 벌써 첫 휴가 갔다 왔을 건데…….

삼십 개월 만땅 채운라면 아직 세월인데, 천천히 가지 뭐."

괜한 질문을 했다 싶었다. 대학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갈 때 그의 말투에는 묘한 감정이 깔리곤 했다. 유일병한테서 직접 그의 지난 날을 들고는 그런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이등병 시절 유일병과 같이 화장실을 줄겨 갔었다. 다섯 칸짜리 구식 화장실은 동쪽을 향해 —자(字)모양으로 놓여 있어서 북쪽으로 나 있는 내무반 막사와 어울려 ㄴ자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내무반 막내들에게 화장실 만큼 자유로운 꺽연실은 또 없었다. 지독한 인분 냄새와 가스는 담배 냄새로 지우며 견뎌냈다. 그 곳에서 군용 삽자를 나눠 피우며 고참들을 씹기도 하고, 고달픔을 달래기도 했다.

"유일병님은 밥에서 뭐 하나 왔습니까?"

"없지."

"그는 정도 어려 가지 아닙니까?"

"그 자식, 별 것 다 까분네…….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다. 아버지께서 양철 동력 소 농사만 안 했으면. 고등학교 마치고 아무 대학이라도 갈 성적이 되긴 했지만 언감생심 꿈도 못 꿨제. 그런다고 농사 지어봐야 별 볼 일 있나. 깨진 독에 물 붓기지. 농사 생각만 하믄 정나미가 뚝 떨어진다……네타니 메고 조그만 회사에 있어 봤고, 막노동도 해보고, 운전도 하고, 연예도 하고, 그러다가 끌려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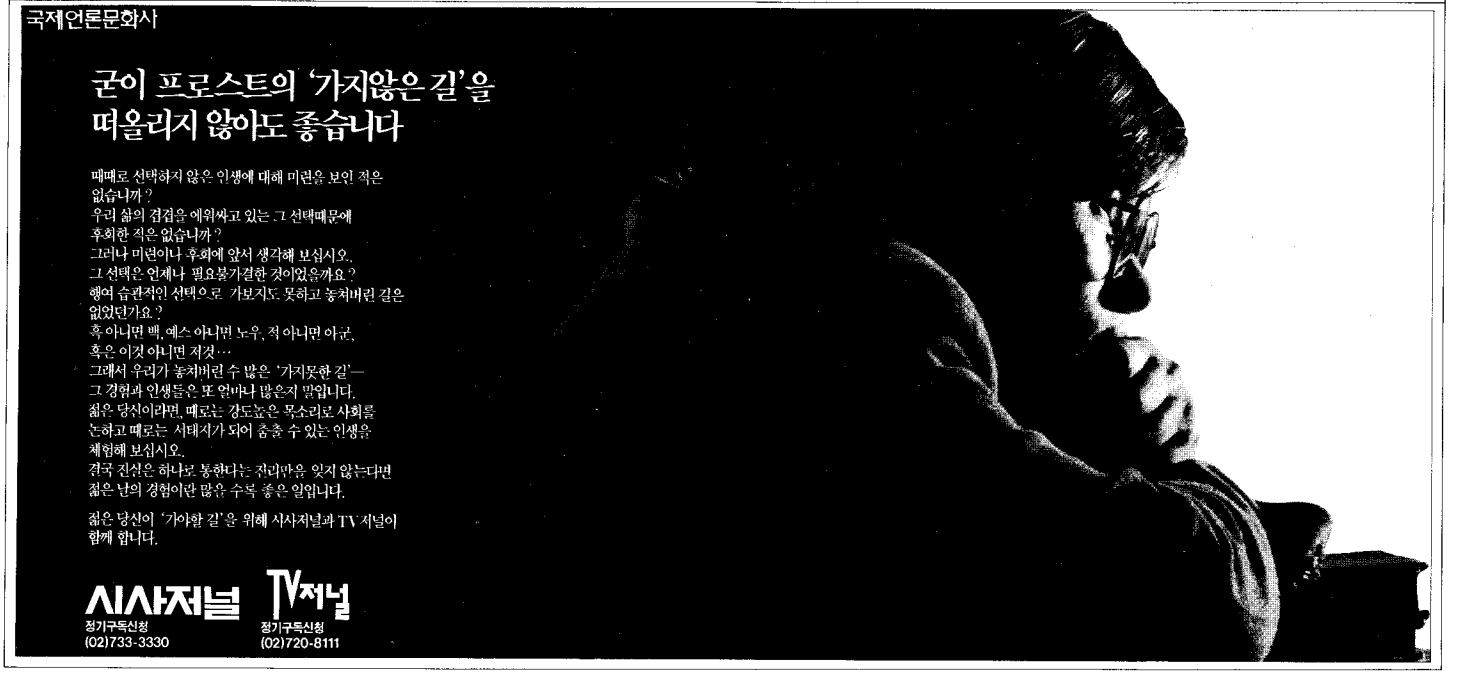
유이병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뿌연 담배 연기가 어지럽게 맴돌이를 했다.

"재미도 없는 과거지사야 탓해보이 뭐 하겠노. 앞으로 시간 나면 다시 시작해 볼라꼬."

"뭘 말입니까?"

"공부말이다."

"대학요?"

〈다음주에 계속〉

국제언론문화사